

경상북도
의회소식

2023. 가을 제136호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QR코드를 통해
경상북도 의회소식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소식



지혜롭고 덕망있는 위인을 품어준

하회마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씨족마을, 안동 하회마을

‘하회(河回)’라는 이름은 마을 주위를 감싸 안고 흐르는 강의 모습이 ‘회(回)’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졌다. 마을을 에두른 수려한 산세와 휘감아 흐르는 낙동강 때문에 아주 큰 재복을 부르는 복스러운 터로 알려졌다. 또 예부터 인품이 고매하고 지혜로우며 덕망 높은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명품 마을로 꼽힌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186

Contents



마주 보다

04 인사말

08 Special 기획

위원회 활동

24 부의장 인터뷰

박영서 부의장

26 의원 인터뷰 part I

남영숙 의원

김창기 의원

이우청 의원

강만수 의원

김진엽 의원

36 5분 자유발언

손잡다

42 의원 인터뷰 Part II

박성만 의원

황명강 의원

연구식 의원

임병하 의원

50 도정질문

54 처리의안

같이 걷다

62 의원 인터뷰 Part III

서석영 의원

남진복 의원

김홍구 의원

황두영 의원

배진석 의원

72 의정 News

78 나드리 경북

일상의 평화, 그 소중함을 발견하다

칠곡군에서 발견한 평화

81 독자 참여

숨은 그림 찾고~ 색칠도 하고~

경북을 함께 알아가요

- 경북 칠곡군 가산수피아

82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역별 의원 현황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발행인 배한철

편집인 김종수 발행일 2023년 10월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

전화 054-880-5144

기획·디자인·제작 동아에드컴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의회소식 → 의회간행물 →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클릭 후 작성

구독 취소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054-880-5144)로 연락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해 여름보다 길고 혹독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극한 호우와 폭염,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도민들에게 큰 아픔과 시련을 주었습니다.

먼저 재난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우리 의회는 재난대응 체계와 매뉴얼에 대해 전면 점검하고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12대 의회는 지난 1년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와 이번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분야별로 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책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개편으로 의정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하나하나 녹여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의원 및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사색하기 좋은 바람이 코끝을 스쳐 지나갑니다.
언제나 늘 보내온 하루하루, 그 평범함.
일상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일상이 주는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일 겁니다.

각자의 일상이 모여 우리의 '경북'이 됩니다.
같이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치
경북도의회가 그 걸음에 동행하겠습니다.

일상
같이



Happy Gyeongbuk

가치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1주년 기념 회고



만약 어떠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본회의에 그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면 어떨까. 입법과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법안 의결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경계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이 상임위원회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허기 위해 구성되는 의회 내 조직이다. 경상북도를 운영하고 다루는 곳이 경상북도청이라고 한다면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더 나은 경상북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조직인 셈이다.

경상북도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사실상 먼저 이뤄지고 있다. 본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적이고 예비적인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구성·설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회마다 그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 경상북도의회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총 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각 상임위원회가 1주년에 맞춰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이곳에 풀어냈다. 지난 1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경북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을까. 함께 살펴보자.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회	위원수	업무 및 소관부서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소관업무: 의회사무처 관련 사항 및 의회운영 전반 검토 조정 소관부서: 의회사무처 위원구성: 이철구, 김대진, 강만수, 김용현, 노성환,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백순창, 손희권, 윤종호, 이철식, 정경민, 황두영, 황명강
기획경제위원회	11명	소관업무: 도정의 기획·조정 심의, 예산·결산 심사, 투자통상진흥, 메타버스 및 과학기술정책, 경제시책개발·육성, 일자리지원 등 소관부서: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동해안전락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위원구성: 이춘우, 강만수, 김대진, 김진엽, 김창혁, 박성만, 박용선, 이선희, 이형식, 최병근, 최병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9명	소관업무: 지방행정지도, 도민의 복리증진, 지방분권, 인구 및 청년정책, 인재개발원 운영, 경북도립대학 운영 등 소관부서: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학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위원구성: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이철구, 임기진, 황명강
문화환경위원회	9명	소관업무: 관광업무종합기획조정, 문화예술진흥, 환경보존 종합기획조정추진 등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위원구성: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구식, 이동엽, 임병하, 정경민
농수산위원회	10명	소관업무: 농어촌 소득증대,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농산물 유통 등 소관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위원구성: 남영숙,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서석영, 신호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황재철
건설소방위원회	8명	소관업무: 항구적 재난안전대책, 도시계획 및 정비, 도로건설, 공항정책 및 신도시 조성, 화재예방 및 진압 등 소관부서: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위원구성: 박승직, 백순창, 김창기, 남진복, 박순범, 이우철, 한창화, 허복
교육위원회	11명	소관업무: 교육개혁과 발전,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위원구성: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이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은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더 나은 경북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밝히며, 의정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의회운영에 있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제12대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박순범 위원(칠곡2), 강만수 위원(성주), 김용현 위원(구미1), 노성한 위원(고령), 박규탁 위원(비례), 박선하 위원(비례), 백순창 위원(구미8), 손희권 위원(포항9), 윤종호 위원(구

미6), 이철식 위원(경산4), 정경민 위원(비례), 황두영 위원(구미2), 황명강 위원(비례대표) 모두 15명의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회운영과 관련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도의원 모두가 정당과 학연 및 지연을 떠나 서로 배

려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등 운영위가 7개 상임위원회의 만형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이다.

우선 이철구 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응한 운영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 TF’를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했다. 이를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능동적인 조직 운영 방안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운용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장기 도의회의 발전 방향과 함께 운영상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획기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전기를 맞아 경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영위원회 우수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와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했다. 지난 2월에는 경상남도의회, 5월에는 전라남도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운영 관련 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위원회 활동 관련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공동 관심 사안인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인력의 채용 및 평가에 대한 방안을 비롯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 대책 마련에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향상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

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회의 안건으로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기간 및 시기 관련 법 개정 건의안’을 운영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제출했다. 본 안건은 짧은 기간 안에 예산안 심사 등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낮아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철구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및 물가 인상으로 도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도의회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토론회를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도의회가 도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주민을 대표한 지역의 정책 결정자, 지역의 대표자 및 갈등 조정자,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여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도의회 존재의 의미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운영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경북도의회 발전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전체의원들이 도민을 위해 신명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경북도의회가 도민행복시대를 앞장서서 열어가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획경제
위원회

지역경제 활력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



2022년 7월 8일,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을 시작으로 11명의 의원이 숨 가쁘게 달려온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정기획과 경제·산업 관련 집행부 10개 실·국, 9개 출자출연기관을 소관하는 경북도의회 핵심위원회로서 위원회 구성 후 지난 1년간, 세 차례의 정례회와 여섯 차례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전통시장·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도정 역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여론 수렴과 현장 경험을 살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에 집중하여 도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 33건을 비롯한 동의안 13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교통복지 등에 기여하였고,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경북의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태풍 한남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등을 의결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도세 감면 및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2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956억 7천 원, 2조 3,844억 원을 각각 심의·의결했고, 2023년도 당초예산안 1조 7,897억 원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134억 원을 각각 심의·의결해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검증, 도민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날카로운 검증으로 도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위원회 소관 10개 실국과 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시장·처리사항 21건, 건의·촉구사항 82건 등 총 103건을 지적하여 행정 전반을 살

피고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했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아파트형 공장 지역 기업 입주 확대, 향토뿌리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소관 출자출연기관과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주요사업 현황 및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태풍 한남호 피해 지역 방문 및 복구 지원 등 각 지역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춘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북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기업 투자유치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 모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행정
보건복지
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 1주년, “도민 위한 씬 없는 행보”



경상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 1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최태림 위원장(의성), 박선하 부위원장(비례), 김원석 의원(울진), 김일수 의원(구미), 김희수 의원(포항), 박영서 의원(문경), 이철구 의원(포항), 임기진 의원(비례), 황명강 의원(비례) 등 9인으로 구성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자치행정국 등 경북도청 소속 7개의 실·국 및 10개의 출연기관 등을 관장하며, 의안 심사, 예산 및 결산 예비심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잘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하여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현황의 불일치에 대한 현행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여, 85%(21조 6,565억원, 2021년 결산 기준)로 광역시·도 중 1위였던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을 1.4%(3,554억원, 2022년 결산 기준)로 개선하고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15개 피감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 30건, 건의·촉구 112건 등 총 142건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하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 청소년남자쉼터, 김천시 덕곡지역아동센터 등 도정 주요사업 현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해당 사업과 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가 도민들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만큼 지난 1년 동안 여덟분의 의원들과 씬 없이 달려왔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도 경상북도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도민들의 복지 향상 및 건강 증진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환경
위원회

도민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지난 1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022년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을 필두로 9명의 위원들이 문화·환경·체육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등 2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 및 4개의 사업소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6개 출자·출연기관을 소관하고 있으며, 경북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생활체육지원, 환경보전, 산림자원개발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 33건, 예·결산안 18건, 동의안 4건 등 58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해 도정 전반의 추진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경북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체육활동 증진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문화·관광분야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회성 행사예산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53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6,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방만한 예산편성을 차단하여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15개 기관에 대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30건, 건의·촉구 51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82건을 지적하는 등 행정 전반을 살피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에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수익구조가 단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북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경상북도 공기업 및 산하 기관의 장을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로 임용하기 위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북 살리기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힘써 왔다”며, “앞으로 남은 1년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수산
위원회

현장을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춘 의정활동을 펴다



지난해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하고 농수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농수산위원회 최초 여성위원장인 남영숙(상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10대 및 11대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신호광(청송), 정근수(구미), 황재철(영덕) 위원 등 정통파 재선위원들과 농수산업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업인 출신 이철식(경산) 부위원장, 노성환(고령), 박창욱(봉화), 이충원(의성), 최덕규(경주) 위원 및 행정 전문가인 서석영(포항), 박홍열(영양) 위원 등 초선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 초기부터 의정활동 행보에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간 농수산위원회의 굵직한 의정활동 위주로 1주년을 되짚어보면 현장을 찾고,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농수산위원회가 되고자 했다.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와 농업생산 기반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해 8월 25일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관심사인 후쿠시마원전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올해 6월 13일 경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을 방문해 감마핵종분석기 시운전에 따른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언론과 소비자단체를 초청해 검사 과정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주 단위로 실시하고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적재적소형 조례 발의와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지난 1년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농수산위원회 소관의 조례발의 건수는 총 14건으로,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경상북도 농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농업 분야의 새로운 시책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맞춰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조례안도 발의하여 농어업인 처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했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살펴보면, 한남노 피해복구 대책, CPTPP 가입반대 및 농수산업보호 대책 촉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농업예산 증액요구 등 현안에 대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현안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농어업 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해 경북 농어업인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했다.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42건, 건의촉구 52건, 제도개선 5건으로 총 99건을 지적했다. 고품질 쌀 재배 지원, 과수 재배기술 연구 다변화, 현장 수요가 많은 농기계 임대 확충,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리시설 안전관리를 지적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을 적극 활용해 농업예산 비중을 일반회계도 전체예산의 9.69%까지 확보하고 당초예산에서 감소되었던 어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힘들었던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농어업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농어업경제 회복과 미래신산업 성장육성에도 힘썼다.

남영숙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농수산위원회 열 분의 의원님들과 현안사항에 대해 늘 소통하고 고민하며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며 “전반기의 남은 1년 여전히 물가·유가·환율의 3고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소방
위원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온 지난 1년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12대 경북도의회 출범 후 전반기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점검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를 소관하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는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경북도의 도시계획, 건축정책 및 토지정보 구축, SOC 구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소방안전 대책,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소관 집행부서를 견제하고 때로는 도정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등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면서도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일례로 통합신공항추진단이 현재의 통합신공항추진본부로 확대·개편되기 전부터 경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중차대한 역점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의 부서장을 3급(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할 것을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온 결과, 통합신공항추진단이 통합신공항추진본부로 확대·개편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하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비에 의존하는 예방사업을 지양하고 도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재난안전실에서 도비 신규사업으로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지역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발생 당시 피해지역 현지확인을 통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긴급복구와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고 개선사항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울릉소방서 신축현장 현지확인 중 실시한 울릉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현장 근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울릉도 특성에 맞는 산악구조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산악구조용 들것과 산악용 구조화 등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제12대 경북도의회 개원 후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현장을 찾아 집행부와 함께 소통·협력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교육
위원회

교육위원회 1년, “도민의 가치 실현 및 미래 교육 수요 적극 대응”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8일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1대보다 2명이 늘어 모두 1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12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윤승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도민과 함께 달려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1년을 되짚어본다.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위원회 구성 시부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표방한 교육위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가지 예로 (구)울릉서중학교 매각건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폐교에 대한 미래 행정 수요 및 보존 가치를 확인하고 매각 유보 및 대안제시,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한 적이 있는데, 이는 현장에 답이 있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폐교 활용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했다.

제12대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36건을 비롯하여, 예·결산안 6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13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조례안 36건 중 의원 발의안은 24건으로, 이는 지난 11대 교육위의 1년차 기간 중 의원발의한 조례안 1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였는데, 특히 2023년 교육청 본예산의 경우 최종 334억원 삭감하여 수정가결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는 등 교육력 회복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효율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열정적이고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총 68건(시정·처리 13건, 건의·촉구 52건, 제도개선 3건)에 이르는 다양한 지적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냈다.

이 밖에도 1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및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도정에 관한 정책도 활발히 추진해왔다.

더불어 대규모 자연재난 재발방지 대책, 대구군부대 통합 이전, 과밀학교 대책 마련 등의 도정 및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질의인 도정질문을 통해 추진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회가 되고자, 다양한 연구회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연구회, 경상북도경제교육발전연구회, 경상북도 학교안전연구회 등 각종 정책연구회활동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22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2022년 대구 경북 의원정책대상’, ‘제13회 우수의정대상’, ‘2023 지방 의정대상’ 등 각 분야에서 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윤승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제12대 교육위원회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타를 해주신 도민,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력 회복,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나되는 경북을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칠 것

박영서 부의장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문경시 제1선거구 /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서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 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만큼 초선 의원들을 이끌며

하나되는 경북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그다.

그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 '기부왕'

지역구 문경에서 그는 '기부왕'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민의 문화 복지향상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복지 기부금을 내는 데 이어, 2014년 10대 도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11대, 12대까지 의정활동비를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경북공동모금회, 문경시장학회 등 지역을 위해 전액 기부해 왔기 때문이다. 문경 토박이인 그는 그동안 문경시 생활체육회장,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공동위원장, 사랑의 열매 사랑나눔봉사단 문경시단장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늘 앞장서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민을 대표해 도정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각종 봉사활동 및 기부를 통해 저 역시 지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들 수 있어 도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추적 역할을 맡은 만큼 수반되는 책임감

그는 제10대 선거를 통해 경북도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1대에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2대인 현재, 의장단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돼 의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11대에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및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실현하고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등 도민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그는 각자 전문 분야에서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로 상임위원들을 구성하고 협의와 소통을 강화해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타의 모범을 보였다.

그의 행보는 지난해 7월 부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밝힌 포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개원한 지방의회인 만큼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장단이 협심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하는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싶습니다.”

그는 의원들이 서로 중지를 모으고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 연수나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싶다고 했다. 의원 60명 개개인이 각자의 목소리를 숨김없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다시 새롭게, 하나되는 경북

“지난 7월부터 군위군이 경북이 아닌 대구에 편입됐습니다. 경북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22개 시군이 강한 연대를 통해 하나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된 목소리를 낸다면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직무 전문성 향상 등 다각도에 걸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그다.

“도민이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도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남영숙 의원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 상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지난해 7월, 경북도의회 최초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농수산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남영숙 의원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온 만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그다.



등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조사 방법 및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경북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위한 '명예 수산물 모니터링단' 운영도 규정하고 있고요. 집행부 역시 이에 발맞춰 앱 '경북바다환경정보'를 통해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의 본격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되고 도내 수산업 피해 또한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금지, 그리고 의무

그는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지난해 경북의 급식관계 교직원 4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질환 검진결과 117명이 이상소견을 진단받아 준비했던 조례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시설 설치, 학교 급식점검단 운영 등을 규정했지요.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하려 합니다."

상주시의회 3선과 의장을 거쳐 도의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활동을 해온 그는 앞선 길을 걷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잘 안다.

"제가 어렵게 걷던 길을 후배들이 따라오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선두에 서 있는 만큼 또 다른 길을 개척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배 여성 정치인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

농수산위원장으로의 책무와 역할

도의회 입성 후부터 위원장을 맡은 지금까지 줄곧 농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영숙 의원이다.

"경북은 전통적으로 농도이고, 제 지역구 상주시는 농업수도라 자부합니다. 현재 상주는 경북농업기술원이 올해 기공식을 갖고 본격 이전을 추진 중이며, 경북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팜혁신밸리는 현재 6개 교육생을 양성 중인데,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 우수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한 덕분에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를 지금껏 떠날 수 없었던 데에는 이런 사업들을 본 궤도에 안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세와 경제위기로 날로 위태로워지는 식량안보도 문제다. "CPTPP*로 인해 농어업이 완전 개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도 우리 농어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소멸위기도 심각합니다. 여기에 최초의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문제에 맞서 경북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문제, 투명함으로 불안감 해소

최근 그는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해의 수산물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외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을 위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친 신속·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안전성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모바일 앱

농수산위원장,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문경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지난 6월 김창기 의원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들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소멸문제 대응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더 잘하라는
의미의
격려,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New 개념 '생활인구'를 대비하자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 생활인구는 거주지 기반의 정주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다른 요즘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에 더해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체류 인구를 고려한 지방교부세 배정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군의 생활인구가 공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경북 영천시가 포함됐습니다.”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경북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동해 등 천혜의 자연과 불교, 유교, 전통문화 등 다양한 인문환경을 갖추고 있어 관광, 레저, 교육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데 어떤 지역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에 맞서 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인구 유출, 막아야 한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유출입니다.”

경북의 청년인구 유출은 출생아 수 급감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2022년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전국 평균(0.78명)보다는 약간 높지만 출생아 수는 2012년(2만 4,635명) 대비 50% 넘게 감소한 1만 1,315명에 그쳤다. 2023년 경북 예산 중 저출산 대응 예산이 약 1조 1,000억인데 이런 추세면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씩 지원해주는 게 낫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지난봄 그가 도정질의에서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경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세종과 제주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북도 출범이 결정됐고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소멸은 경북의 자치권한만으로는 대응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특별자치도 설립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물론이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등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해 우수 기업과 인력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까지 추진하다가 흐지부지되어 버린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든지요.”

우수의를정대상 수상, 초심의 계기 되다

그는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문경시의원 출신으로 제8대 문경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그는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문경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개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 분권강화 및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전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격려와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초심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 경북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우청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김천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지만 노련하다. 의정활동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우청 의원이다. 이런 노련함의 바탕은 오랫동안 몸 담았던 김천시의회 의원활동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제는 시민을 넘어 도민을 위해 지금껏 쌓은 경험을 쏟아붓고 싶다는 그다.



화제가 됐던 그의 도정질문

제5대부터 제8대까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김천시의회에 몸담은 햇수만 해도 무려 17년이다. 마지막이었던 제8대 김천시의회에서는 의장까지 역임하며 의회를 이끌었다. 그렇기에 그는 도민을 대표해 지금 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 경험은 지난 6월 있었던 도정질문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는 2016년 사드배치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파 영향지역인 김천의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당시 김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이철우”가 되어 몸소 전자파의 무해성을 입증해 달라”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암 환자가 전무했던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는 2020년과 2022년 사이 전체 인구의 6.7%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당시 피해가 없을 거라며 인근에 집을 사 무해성을 입증하던 이 도지사였지요.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불안해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집을 구해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하던 지사님의 약속을 언제 실천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도의회를 위해

“제 전공이 토목 관련입니다. 그래서 상임위는 건설소방위원회를, 특별위는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죠.”
경북도의 미래 산업을 위해 지난해 그가 대표 발의한 ‘경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경북의 미래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관련 조례가 전무하기도 했고, 정부가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여러 차례 발표한 만큼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기존 기업들을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책을 실행해서 지역 경제 도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그는 4선 시의원으로서 도의회 발전을 위해 개선시켜야 할 점도 눈에 띄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온 만큼 지방의회와 비교해 도의회 회의법이라든지, 도의원들의 품위라든지 아쉬운 점들이 꽤 있습니다. 전 저희들이 270만 도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예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품위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동수단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임위원회가 6개인데 위원회별 차 한 대가 없습니다. 도의회 통틀어서 버스 2대뿐이지요.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필수인데, 이런 점이 지방의회보다 못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차차 개선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도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서 세 번이나 당선된 그는 복지, 환경, 농업, 건설 등 다방면에 걸쳐 두루 경험을 쌓은 정치 베테랑이다. “지방의회에서 경험을 쌓고 도에 들어오는 것이 도정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의회 사정을 누구보다 빠르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방의회 4선 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도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5만 김천시민을 위해 일했던 경험을 도의회에 모두 쏟아, 270만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도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깁니다.”

지방의회를 통해
쌓은 경험,

도정활동에 쏟아
도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강만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성주군 선거구
국민의힘

제12대부터 성주군의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됐다. 그래서인지 성주 전체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만수 의원이다. 경북도의회 유일한 의사 출신 의원으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도정활동을 펼쳐보이겠다는 그다.

성주, 더 나아가
도민의
대표자로,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싶습니다



오직 도민을 위해 펼치는 의정활동

올해 4월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명시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그는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자율방범대가 존재하기에 우리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방범 차량마저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정도로요. 그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번 조례로 그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군민의 염원 성주-대구 고속도로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언급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4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성주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성주군은 1, 2차 산단이 조성돼 있고, 제3차 산단 및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 있지만, 성주와 대구를 잇는 도로는 국도 30호선이 유일하다. "현재도 심각한 교통난을 겪는 곳인데 향후 물류량이 급증하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사드의 일방적 배치에 따른 군민들의 심리적 고통 보상,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의, 동서 3축 고속도로 완성으로 진정한 의미의 영호남 상생·화합이란 차원에서 보더라도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도의회와 함께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를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성주군의 든든한 대변인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온 그는 성주에 대한 무한 애정을 인터뷰 내내 보여주었다.

"지난 2016년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후 수많은 군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현재도 사드기지 주변에는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지요. 다행히 지난 6월 사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여 지금은 지원사업을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 성주의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심이 높습니다. 국비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는 또 독립운동과 관련이 깊은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에 위치한 목조건물 백세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백세각은 3.1 운동 당시 성주 장날에 배포할 태극기를 제작·보관한 곳이자, 경북유림단의 '파리장서 사건'의 모의장소로 활용된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2019년 여러 민간단체들이 주최·주관했던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 다양한 행사와 퍼포먼스를 통해 백세각을 널리 알릴 수 있어 좋았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행사가 있어 보람도 느끼고요. 하지만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성주가 이를 기릴 만한 마땅한 기념공간이 없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백세각 인근에 독립운동기념관이나 파리장서기념공원 건립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남다른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진엽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포항시 제8선거구
국민의힘

인터뷰를 위해 사무실을 찾았을 때 김진엽 의원은 도의회 정례회를 위한 자료 준비에 한창이었다. 평범한 도민에서 시의원도 아닌, 광역의원이 된 만큼 도민들을 위해 더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는 그의 말과 눈빛에서 도정활동에 대한 열의를 읽을 수 있었다.

더 나은
오천읍을
위해
발로 뛰며
소통하겠습니다



도의원 업무가 산재한 지역구

“우리 오천읍은 어떤 지역보다도 혐오시설 등 특수한 여건의 시설이 많은 탓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높은 난제들도 상당합니다.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역 번두리까지 도심이 확장해 나가면서 공장지역과 거주지역 사이의 거리가 밀접해지기 시작하자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전부터 자리했던 공장을 없앨 수는 없겠죠. 대신 그 공장이 오염에 대한 정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 수 있도록 해 폐기물에 대한 주민 우려를 줄여주는 것이 오천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는 지난해 포항 전역을 덮쳤던 태풍 힌남노의 피해복구 상황도 언급했다.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 점검과 시설 보강 조치는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대비 대응법을 교육해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자체적인 능력도 강화시켜야 하고요 주민 피해 최소화과 안전 확보,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역의 귀한 자원이 될 다문화 가정

최근 들어 그는 지역의 다문화 가정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외국인들도 우리 문화를 흡수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대적인 도움과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오천읍은 경북 유일의 자연인구 증가 지역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보람과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이에 대한 다문화 가정의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천읍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엄마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도 해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면 이는 저희 지역의 또 다른 강점이자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 넘치는 오천을 위해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지역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오천읍은 최강 해병대,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며, 천년고도 신라의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운제산 자락 사찰 ‘오어사’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준공된 포은 오천도서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개최를 통해 문화적 삶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도내 아동이 제일 많은 곳인 만큼 향후 지역문화와 어린이 특성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웃어주는 지역민이 있기에 힘을 내어 봅니다. 항상 지역민을 위해 고민하고 움직이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천읍에서 나고 자란 만큼 지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싶다는 그의 열정이 느껴지는 만남이었다.



5분 자유발언

뿌리부터 튼튼한 경상북도를 만든다 의원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듣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을 대신해 의회에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도의원들이야말로 도민들의 히어로다. 제341회 임시회에서 울려 퍼진
도민을 향한 의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어보자.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소식지에 소개된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의 지난 발언을 모두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2.)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비례대표)



한 조사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시 경북은 9,000억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5,000억에 달하는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8,000여 명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는 그 2배의 효과를 창출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유치경쟁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은 경주와 부산, 인천, 제주로,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 세 곳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APEC 유치를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는 12월 유치 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바로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북이며 그 가운데에서 경주가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의원의 발언을 또다시 관행처럼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2025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상북도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경북이 반드시 유치하여 경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2.)

황두영 의원(교육위원회/구미)



저는 오늘 청년창업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창업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도약형 지원사업을 확대 발굴·지원하여 경북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이 도내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창업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사업을 투자유치 등이 결합된 융·복합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사업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도 자신감 있게 청년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그 마중물이 될 지역 기반 청년창업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민간자본이 청년창업 생태계에 유입되어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지원 방식도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과 투자유치 등이 결합된 융·복합 형태의 투자생태계 조성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2.)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포항)



지난 8월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134만t이 넘는 오염수가 향후 약 30년 동안 태평양으로 방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를 제안드리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현장성 확보입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과 수질 등 환경적 검사 수요 증가입니다.

셋째, 감염병과 식의약에 대한 검사건수가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안전 문제를 검증하는 데 도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바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포항 설치이기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2.)

이형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예천)



지난 2021년 'LH 사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1년 농지법을 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심사와 사후 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폐지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개정 농지법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며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경상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2.)

윤종호 의원(교육위원회/구미)



먼저 신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올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진동과 먼지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으며, 현재 확정된 활주로 방향은 특화단지 기업에 상당한 생산성 저하와 불량률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현재 활주로 방향은 소음 분쟁이 심한 기존의 대구공항과 약 90도 가까이 꺾인 반대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방향대로라면 구미시의 입장에서 활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주거밀집 지역을 직격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에 따른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위군은 민항, 대구 편입 등 의성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성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향후 예정된 후속 사업들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신공항의 완공까지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으로 260만 경북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편에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BEAUTIFUL

“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붉게 물든 단풍, 수확을 앞둔 곡식

마음이 풍요로워진 만큼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그리고 연인과…….

사랑으로 가득 차오른 마음을 느끼며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오픈 세트장)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32

GYEONGBUK



정치는 ‘소통 · 믿음 ·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박성만 의원

영주시 제2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만 의원은 “자신의 목소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서로 한 걸음씩만 물러서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INTERVIEW

문제 해결의 키, ‘소통’



지난 6월 26일 제34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성만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난 후 본회의장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민을 위해 협치, 상생, 소통을 호소하는 그의 발언이 동료 의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날 그는 지난 2월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했을 때 도의장이 초청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북도의회가 정무 감각 부재를 지적했다. 또 그는 “요즘 언론을 보면 지방자치가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정치는 실종된 것 같다”며 “시도지사는 지방정치의 선두에 있는데, 지방의회는 웬지 구경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손꼽았다. “저는 ‘정치가 밥’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서로 만나서 식사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게 되고 진정성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대화 자체를 안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마주앉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아닌 경쟁은 도민들만 고통받을 뿐



“본회의장에서 너무 내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서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부도 난처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지역 간에 정치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건 그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지난 5월 1일, 23개 시·군(당시는 군위 포함)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관 유치 공모를 일례로 들었다. 당시 8개 시·군이 떠나할 것 없이 피켓을 들고 서명운동을 펼치며, 경쟁적으로 공모에 뛰어 들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경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안동 신도시가 당초 로드맵처럼 되지 않는 지금, 만약 도지사가 자치단체장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신도시에 유치하고 싶다고 설득한다면 과연 반발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화를 먼저 시도하면 부딪힐 일도 적어지고 도민들의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경쟁과 반목을 없애려고 도민들이 저희를 대리자로 뽑아냈는데 갈등과 불화만 보여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는 이철우 도지사에게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대여소 정국이라는 가시밭 정치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게 광역의원 60명 중 58명이 국민의 힘 소속인 경북도는 비단길 정치나 다름 없죠. 정치적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면 경북도민은 전국에서 최고로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5선 도의원이 주는 울림



그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배경에는 그의 오랜 정치 경력 이 뒷받침하고 있다. 1992년 27세에 14대 국회의원 최연소 출마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6대 경북도의회 최연소 당선(33세), 7대 도의회 최연소 기획위원장, 9대 도의회 부의장(최초 무소속 부의장), 10대 도의회 최다선 의원(4선), 12대 도의원 중 유일한 5선 의원 등 무수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정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서로 견해가 다름을 인정해준 뒤 다시 고민하면 각자가 가장 옳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협치 · 상생 · 소통으로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과 여성을 대표해 있는 자리, 그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황명강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국민의힘

지역 성평등보고서(2022,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경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순위 성평등지수가 최하위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등 모든 면에서 아쉽기만 한 경북의 수치를 보며 황명강 의원은 여성리더 발굴과 양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한다.

INTERVIEW

경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다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황명강 의원이 끄집어 낸 화두, 경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경북 여성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도의원이 된 후 여성정책연구회를 구성해 대표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한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의 도출자료를 근거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북 여성의 활동 장애요인으로는 크게 4가지가 존재한다. 도민의 양성평등 인식 부족, 여성 리더교육 기회 부족, 여성 활동의 네트워크 부족, 일과 가정 양립에 따른 어려움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여성 리더교육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부산, 인천, 경기 등은 오랫동안 다양한 교육 및 네트워킹 활동들을 펼쳐왔고, 그게 지금 지역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리더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는 경북 여성들을 위한 교육 기회와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경북도 및 22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량 증진과 사고 전환의 기회가 될 소통의 장, ‘ESG 대한 민국 여성 포럼(가칭)’ 개최를 도지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성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된 까닭



그가 한국여성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된 연유가 문득 궁금해 물으니 선덕여왕이 계기가 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주 출신으로 한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여성리더십 공부를 할 때 선덕여왕의 업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경북 여성들은 너무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7세기에 무려 15년간이나 신라를 통치했던 여성리더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인데 말입니다.”

그는 신라시대에 선덕, 진덕, 진성 세 분의 여왕을 배출한 리더십과 저력이 숨쉬고 있는 경북인 만큼 지역 여성들이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 사회활동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성 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경북도의 여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도행정을 점검해 나가면서,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추진하겠습니다.”

경주권역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지역민의 염원



“경북의 6개 진료권 중 경주권만 지역책임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절대적인 심뇌혈관 질환자들이 특히 야간에는 급히 갈 만한 병원이 없죠. 지역민의 염원인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열악한 경주권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2016년 강진 피해, 원자력발전소 내 고준위방폐물에 따른 누출 불안 등 타 지역에 비해 재난·재해 발생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주에 제대로 된 의료인프라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포항권 17.1% 대비 70.7%라는 경주권의 응급의료 유출률만 살펴봐도 그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더욱이 올해 정부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의 최종 치료기능을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개편하기로 한 만큼 지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구와 의정 활동에 매진한 그이기에 지난 6월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늘 최선을 다하는 그의 도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본다.





환경 · 복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역량을 십분 발휘하겠습니다.

연규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포항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활기차다’, ‘열정이 넘치다’, ‘쾌활하다’ 연규식 의원과 만남 이후 떠오른 문장들이다.

포항 구룡포읍 수협조합장 출신으로, 포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INTERVIEW

환경이 화두인 시대, 지속성을 고민하다



초선인 그는 의원 당선 전까지 환경 · 복지 · 소방 · 해양수산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이 경험을 초석 삼아 경북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와 접목하는 정책을 펼쳐보고 싶어 했다.

“해안선이 569km나 되는 경북만의 환경적인 특징과 해양문화의 특색을 보존 · 발굴해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유지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최근 환경이 화두인 만큼 문화와 환경이 조화로운, 미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지역구 명소에 대한 생각도 앞서 언급한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영일대 해수욕장이 쓰레기와 주차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해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봉사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깨끗한 해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말이 되면 급증하는 차량 때문에 주차장 협소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특성상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관광객은 물론 주민도 불편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우선적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일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근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 투명하고 윤리적인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조례안은 ESG 경영의 선도적 이행과 빠른 정착,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조력하여 경쟁력 강화와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공공기관의 책무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ESG 경영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북도가 공공은 물론 민간분야의 ESG 경영 확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는 ‘경북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역시 경제 · 환경 · 사회의 실질적 조화와 균형을 경북도 차원에서 이뤄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의 열정을 담아 주민을 살피다



도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을 넘어서 지금 그는 포항이 보다 더 역동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렇게 바빴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동안 포항은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증가세를 보이게 됐지요. 지역구 인구감소가 증가로 전환되고,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반갑습니다만 여전히 빈 상가가 많다는 것은 씁쓸합니다.”

급격한 공장 증설과 아파트 신축으로 부각될 환경 문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입주기업이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면밀히 살펴 기업과 지역민의 상생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임병하 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문화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인터뷰 내내 지역민들과 안부를 묻는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을 살뜰하게 챙기는 임병하 의원의 모습은 그만큼 인상 깊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영주가 간직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홍보해 나가고 싶다는 그의 모습에 사뭇 결연함마저 느껴졌다.

INTERVIEW

천혜의 자연유산을 간직한 영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주입니다. 여기에 소백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유산까지 보유하고 있지요.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관광요소들을 머금고 있는 곳 이 바로 영주입니다.”

임병하 의원은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영주시가 관광도시로서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시작했다.

“영주는 경북 북부권이 시작되는 관문이면서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과 함께 소백산을 품고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가 있지요. 여기에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웰니스 관광지로 추천한 국립치유원,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잘 알려진 무섬마을, 그리고 최근 문을 연 선비세상, 선비촌과 여러 고택 등 관광콘텐츠가 가득한 곳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밀려버린 영주



최근 그의 도정질문을 들여다보면 영주시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북도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있다.

“소백산이라는 같은 산을 두고 충북과 경북이 여기는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너무 다릅니다. 충북도가 올해 단양군에 편성한 관광정책 예산배정액은 247억 원(국·도·시군비)인 반면에 영주시는 고작 37억 원에 그칩니다. 인구가 10만이 넘는 영주시가 고작 인구 3만도 안 되는 단양군보다 관광관련 예산을 훨씬 적게 받는 게 맞을까요? 관광정책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르면 예산이 쓰인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상당하다. 단양은 시설 위주 투자가 많고 영주는 프로그램 위주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많다. 영주시민들조차 소백산 관광을 생각하면 영주보다 단양을 먼저 떠올린다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한다.

“영주뿐만이 아니라 경북의 각 시군에 다양한 관광요소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돼 문화관광체육 관련 예산 대부분이 안동과 경주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지요.”

새로운 기회가 될 마구령 터널과 지방도 935번



그는 장장 8년에 걸쳐 완공될 마구령 터널이 영주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마구령 터널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터널이 개통하게 되면 영주 접근성이 월등히 개선 되겠지요. 문제는 여기서 영주 도심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935번 도로입니다. 강원도 영월 김삿갓면과 충북 단양 영춘면, 그리고 영주를 연결하는 이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인 관문 도로 역할을 할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선형개량이 전 구간에 걸쳐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콘텐츠는 갖췄으니 한번 준공되면 향후 수십 년간 손대기 힘든 SOC사업을 지금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발전지수 등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영주의 관광발전을 도로교통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 몸 담고 있는 동안 이런 점들을 차츰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대변해 질문드립니다

도정질문은 도정에 대한 각계각층 도민들의 의견을 경북도 의원들이 청취 및 수렴하여 도지사나 관계 공공기관, 실국 등 부처에 대신 질의하는 절차입니다.

도정질문은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불공정한 사안이나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 방안 및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지면 관계상 도정질문 전체 내용을 모두 다 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원별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8. 29.



김창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구미)



통합신공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항공물류 관련 산업 및 주거·상업·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구미지역을 연계하여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22개 시군 간 협력 추진 관련하여 경북도가 광역단위 사무의 체계적 수행과 시군 간 이해절충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확대로 도정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룸촌 등 도심 빈집문제 해결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도심 빈집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내 빈집들을 활용해 어린이도서관, 어르신 쉼터, 공동육아방 등 공익적 목적의 빈집 활용 방안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북도의 도심 빈집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대책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바라며 도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 관련하여 교육청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자정작용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집행 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도교육청이 경북도와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8. 29.



황명강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첫째, 현재 경북도의 여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북도 여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각 영역별 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검토와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북 여성 정책에 있어서의 ESG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여성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둘째,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 매뉴얼 제작과 재난 교육 확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 같은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며 지역 TV방송을 통해 상황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반복적인 실시간 자막뉴스를 보도해 주면 재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셋째, 열악한 경주권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경주권 책임의료 기관 지정과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부모 인성 교육, 부모 인식 제고 교육을 확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8. 29.



임병하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영주)



첫째, 도지사께서는 영주댐 레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소백산 관광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구체적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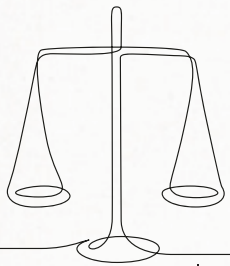
둘째, 경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북도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지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의 선형개량이 전 구간에 걸쳐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이와 함께 왕복 2차선이 아닌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사태 등 수해 대책 관련하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이며 경북은 최근 매년 수해피해를

입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전년도 수해에 대한 후속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성교육에 관한 철학과 견해는 무엇이며, 경북도 교육청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또한 이를 통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도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



1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선희 의원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경상북도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등 심의, 위탁·대행의 도의회 동의, 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 정산 등을 규정함.

2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병근 의원

제정이유

-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 중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화재 발생 시 거주지 전소 등으로 인해 당장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긴급복구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 이중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하여 긴급지원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주택복구비·심리회복 지원,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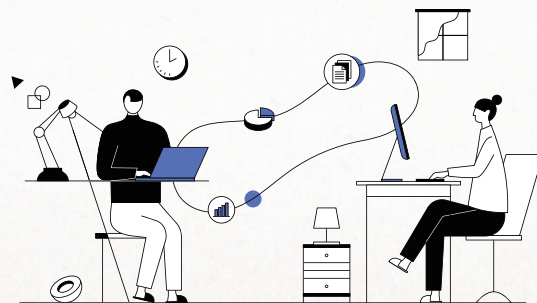
대표발의 이철구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본 방향, 인력양성 및 공급 등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과 예산 지원, 기업 등의 유치 지원,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



4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태림 의원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발 및 추진, 국가 추진 정책에 대한 행·재정 효율성 확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가 5년 단위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원하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경상북도지방시대지원단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선하 의원

제정이유

-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대상,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원석 의원

제정이유

-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으로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걷기포인트의 지급, 걷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걷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

7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황명강 의원

제정이유

- 지역의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 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8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희수 의원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예외 사항,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9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경숙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 조례 제명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지원 대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위임·위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0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정경민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소년의 회교실 대상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수료증 수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조를 위한 사항, 청소년의회교실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1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병하 의원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1. 4. 1. 시행)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이 포함된 '경상북도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기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12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철식 의원

제정이유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교부, 지원금의 환수 및 현장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

13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황재철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환경오염, 국내외 어선의 남획으로 고갈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각종 문제점 또한 예상되고 있음에 경상북도 동해안의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종자의 분양,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를 규정함.

14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홍열 의원

개정이유

- 현행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동물복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위원회 신설과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맹견관리를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 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5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석영 의원

제정이유

-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 외 신규 화물 지원제도 마련으로, 물동량 확대 및 항로개설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과 도내 해양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및 지원금 용어를 재규정하고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사항, 컨테이너 외 화물에 대한 지원금 관련 사항을 신설함.

16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순범 의원

개정이유

-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아이돌보미의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17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진복 의원

제정이유

-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 서비스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생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유사 사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주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

18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우청 의원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위한 구성·운영 조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자동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른 상설 관련 규정을 수정함.

19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채아 의원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청년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청년시설과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 구축과 실현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 「취약계층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의 정의, 청년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청년 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년위원의 정수, 청년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청년시설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광택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자원 확보에 필요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경상북도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도지사의 책무, 의과대학 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의과대학 유치사업, 지원사업,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회의,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함.

21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채아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단위 학교별 운영위원회와 22개 시·군 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정의하고 협의회 구성, 임기, 회의, 협의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박채아 의원



제정이유

- 최근 심각해지는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각 주체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을 달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각각 보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교육감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내 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3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발의 배진석 의원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른 인사청문회(2023. 9. 22. 시행)를 앞두고 경상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무직 부지사,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청문 운영 방식, 인사청문요청한 첨부서류 및 회부와 질의, 증인 등 출석요구, 인사청문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인사청문경과 보고·자료제출요구·인사청문회 공개의 원칙, 사청문대상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인사청문위원의 제척·회피, 인사청문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와 행정지원 및 준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2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배진석 의원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4조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 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2023. 12. 31.)이 도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용어 변경함.
-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함.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신설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일부 개정함.

25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차주식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의, 교육감 책무,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에 대한 신고 체계,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하기 위하여 시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6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홍구 의원



제정이유

-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은 중요하며, 올바른 식습관 개선으로 질병 예방, 건강한 상태유지는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정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도·감독, 실태조사,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7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홍구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소외된 지역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여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조례는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상북도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도지사의 책무 대한 기준,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경계지역 현지 조사, 위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8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종호 의원



개정이유

- 경북도민이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경북형 경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기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을 적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도지사가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29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윤종호 의원



개정이유

-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경제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

30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종호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도 학생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황두영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 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학교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예방·관리·점검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유해물질의 적절한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언제나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가을도 마찬가지로.

아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압니다.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혼자가 아닌 '함께' 합니다.

*Nature of
Gyeongbuk*

‘찰나’임을 알기에
더욱 소중히
하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경북만의 스토리텔링은 경북만의 경쟁력이 됩니다!

서석영 의원

농수산위원회 / 포항시 제6선거구 / 국민의힘

스토리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
흔하게만 여겨졌던 마을숲에 탄탄한 이야기가 입혀지면
이내 특별한 나무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찾아진다.
서석영 의원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6월 광역의회
최초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야기한다.

유서깊은 전통마을의 수만큼 다양한 경북의 마을숲

“마을의 수호자 역할을 하던 당산나무를 기억하나요? 그 주변이 피폐해져가는 것을 더는 두고볼 수 없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의 전통마을들을 주의깊게 관찰해 온 그의 세심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

“저는 마을숲이야말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댁에 놀라가면 매미를 잡기도 했던, 그런 아련한 추억이 서린 곳이죠.”

마을숲은 전통적으로 농어촌의 중요한 경관자원이자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체 문화의 붕괴로 외래식물과 병해충이 창궐해 노거수가 고사하고,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등 옛 모습을 잃고 황폐화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 마을숲 지정 · 포상은 고유 문화 콘텐츠를 찾아가는 과정

“마을숲의 노거수들은 웬만하면 그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전설들은 마을만의 콘텐츠가 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마을숲 이야기 발굴을 통해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그 마을을 넘어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

“조례안을 근거로 재정지원을 받아 잘 관리된 마을숲을 포상하거나 우수 마을숲 등으로 지정을 한다면 관광객들은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고, 마을주민들과 출향인들은 마을에 더 많은 애정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조례인 만큼 경북이 주도해 마을숲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의 어투에서 마을숲을 향한 애정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

보존과 함께 수많은 스토리 품을 수 있어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만큼 호미반도에 조성될 국가해양정원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그다. 국가해양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처럼 기존 육지에 조성되는 국가정원의 개념을 바다까지 넓힌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난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근거 법안은 마련된 셈입니다. 호미반도 일대에 보존된 인문·역사·생태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국가해양정원은 세계적인 해양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민 여가공간 탄생은 물론 포항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00년, 천 년이 넘는 유서깊은
마을들도 지금은 마을숲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노령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크겠죠.
재원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울릉을 대표하는 유일한 도의원, 정주여건 개선과 국제 관광지 도약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지난 6월 12일 경북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울릉군 안용복기념관에서 열렸다.

2006년 제8대 정례회부터 현재까지 울릉도·독도에서 개최된 본회의는 총 5회.

그중 제10대·11대 정례회에 이어 제12대 정례회까지 3번을 연속 참석한 남진복 의원은 울릉도·독도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한다. 동해의 유일한 도서지역, 울릉도·독도만을 생각하며

영토 수호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울릉도 토박이 도의원 남진복 의원이다.

남진복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울릉군 선거구 / 국민의힘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는 내 지역구

회기 때마다 본회의 참석을 위해 바다 건너 먼 길을 가야만 했던 그가 지난 6월에는 지역구 울릉군에서 동료의원들을 맞이했다.

“이른 아침 울릉에 도착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2만 톤급에 이르는 크루즈 운항으로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조금 이나마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2020년 2월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던 씬플라워호 운항이 종료된 후 불거진 해상여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던 그것기에 감회가 더 새로웠을 것이다.

“울릉크루즈가 취항하기까지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과 도지사가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울릉도·독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광역의원이란 생각 때문에 신중하게 상임위원회를 선택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그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독도수호와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체감했습니다. 제11대 의정활동은 농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제12대 도의회에서는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선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공항·도로·철도·건축·소방·재난 및 안전에 관

해 다루는 만큼 울릉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릉 발전에 힘이 될 의정활동에 집중

그는 임기 동안 울릉군의 마지막 숙제라고 여겨지고 있는 도립병원 설립과 울릉공항의 온전한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그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같은 굳건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울릉도는 교통도 문제지만 의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는 이곳에 경북도가 책임지고 경북 포항의료원 분원을 울릉에 설립해야 합니다. 다행히 설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포항의료원 분원 설립, 닥터헬기 상주 등 여러 안들 가운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

인프라 부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적 관광지 도약을 위해

울릉공항, 일주도로, 울릉항 등 기반시설 확충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관심사다. 공정을 30%에 이르는 울릉공항의 계획년도(2025년 말) 완공과 중형급 기종 취항, 면세점 유치 등을 주장하며 그는 일주도로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전면 개통되어 협소한 도로폭과 낙석사고 위험 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지방도라는 한

계로 아직도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울릉도의 기상특성과 열악한 구조적 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안전기준에 적합한 완벽한 도로 조성

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주도로 3단계 공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동항을 포함하는 크루즈, 마리나항 3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사동항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향후 3단계는 국제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하고 마리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도동항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의 울릉항 3단계 공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울릉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약속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참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구 의원

교육위원회 / 상주시 제2선거구 / 국민의힘

시 의정활동을 통해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 더 크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 도의원이 됐다는 김홍구 의원이다. 그렇기에 지난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그가 수상한 ‘우수의정대상’은 큰 의미로 다가왔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이 유형의 결실을 맺은 것 같은 느낌에서다.

상주시에서 경북도를 위해

상주시의회 제6~7대 의원을 지냈던 김홍구 의원이 지난해 도의원에 당선된 뒤 의정활동을 펼친 지도 벌써 1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그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 상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소관기관과 실국의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도민을 위한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시 의정활동을 통해 아쉬웠던 부분들을 도의원이 되어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도의원에 당선되고 난 뒤 발로 뛰는 부지런함과 모르면 배운다는 열정 하나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좋게 봐 주셔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내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필요성

최근 그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양과 식생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에서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 외에도 ‘환경보전’의 가치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교육도 포함된다. 학생 개인의 식습관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기시켜 환경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례안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영양교육체험센터의 설치·운영,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행정 경계를 허물 정책 시급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의 대표 의원이기도 한 그는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이다. 어떤 형태로든 각 시·도의 경계지역에는 주민 삶의 터전인 마을이 존재하고, 그들은 서로 일상·경제·문화와 행정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상주는 문경, 봉화, 영주, 김천 등과 함께 경북을 통과하는 백두대간 주변의 대표적인 경계지역입니다. 경북의 시·도 기준 14곳 경계지역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정책 지원이 미흡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 늘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8월 연구 용역에 착수했는데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경북을 이끌 학생들이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번 조례로 영양교육체험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니 실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황두영 의원

교육위원회 / 구미시 제2선거구 /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인 황두영 의원은
경북 교육의 메카라고 알려진 구미시의 도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교육문제에 열정적이다.
구미 지역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도서관 신축과
교육자유특구 등 경북의 교육을 위해
바쁜 도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교육에 누구보다 진심

지난 3월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다.

“요즘 주변 가족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자녀가 1명이죠. 2명 인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이 이러하데 다자녀의 기준을 3명이 라고 계속 규정짓는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된 조례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 그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라고 말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인구총조사'를 보면 경북도 내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 3자녀 이상인 가구는 고작 전체의 10.4%에 불과한 대신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죠. 이는 역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3명이라는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발생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도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50% 이상(향후 5년간 약 500억 원 지원 추정) 되는 다자녀 가정이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조례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오산 관광자원화 정책 필요성

교육만큼이나 그가 최근 관심을 갖는 건 금오산도립공원의 관광자원화 정책 수립이다. 구미시를 포함한 배후도시인 김천·칠곡·성주, 더 나아가 대구·상주·경산·의성·예천·군위·고령·영천까지 약 3백만 명 이상의 잠재적 관광 수요를 생각하면 더 많은 예산 배정과 정책 수립은 꼭 필요한 일이다.
“금오산도립공원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경북도는 금오산과 청량산에 대한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관리계획을 고시해야 합니다. 경북도립공원의 청사진이 될 2025년 공원관리계획에 금오산도립공원에 대한 구미시민의 염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지역과 주민만 보고 주민 편에서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자녀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23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대상 수상

일 잘하는 의원, 도민을 위한 의원,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의원

교육위원회 /
경주시 제1선거구 / 국민의힘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지방의정부문 대상 수상



1. 경북 난립 지원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3. 23)
- 2 - 3.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수상(6. 26)
4. 서라벌봉사단(6. 3)
5. 서예천 수해지역 복원(7. 24)
6.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9. 1)
7. 연구회 활동(4. 6)
8. 경북천년숲정원 개원 기념 축제(4. 24)
9. 세이브더칠드런 경상북도 아동권리상향분석 연구보고회(5. 11)
10. 경북장애인체육대회(5. 2)
11.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4. 26)
12. 경주 어린이날행사(5. 5)
13.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활동(8. 17)
14. 의원연구단체 활동 보도기사(5. 16)
15. 경북기능경기대회(4. 5)

NEWS

의정 소식



김종수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취임, 업무보고회 등 광폭 행보

김종수 전 자치행정국장이 지난 7월 1일 경북도의 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이후 곧장 현 안 업무 보고회를 열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언론 사 외 주요기관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김종수 사무처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 치법 시행에 맞춰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확대 등 의회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포 부를 밝히며,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60명의 도의원을 잘 보좌하여 집행부와의 협치, 주민참여 확대 등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 부를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도민을 위해 큰 틀에서 사고 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의회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 은 조직문화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지난 7월 5일 경북도 의회 다목적실에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한철 의장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어디 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 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분 야에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를 그리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 탁했다. 이어 그는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 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배한철 의장,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현장 긴급 방문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지난 7월 15일 오후 집 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배 의장은 피해 현장에서 응급 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 민들을 위로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가 입힌 침수와 산사 태,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가 수많은 도민들에게 인명과 재산적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 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및 조속한 지원을 부 탁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채수근 상병 영결식 조문

지난 7월 22일 경북도의회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 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 근 상병의 영결식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배 한철 의장은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철구 의회운영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윤승 오 교육위원장, 김진엽, 배진석, 서석영, 연규식, 윤종 호, 정경민, 최병준, 한창화, 황명강 도의원 등과 함께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영결식을 찾아 헌화하며 그의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 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배한철 의장은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며 “유가족분들과 곁에서 함께 했던 해병대 장병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 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다”며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살피겠다”고 고인의 명 복을 빌었다.

NEWS

의정 소식



경북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천만 원 전달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7월 24일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정동의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함께했으며,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이재민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배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뜻을 모아 모금한 성금이 우리 지역의 꼭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어 도민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지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7월 27일 사무처 직원 40여명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문경시 산북면 지역을 찾아가 상가 일원 피해 복구작업을 도왔다.

이날 복구작업에 참여한 사무처 직원들은 집중호우로 침수된 상가의 토사 배출 작업 및 주변 환경정리에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복귀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배한철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신속한 수습을 위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재난상황을 대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

의정 소식



경북도의회, 日 독도 도발 방위백서 폐기 촉구

경상북도의회는 7월 28일에 발표된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기 시작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97년부터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하는 등 올해로 19년째 영토리 역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경북도의회, ‘2023 을지훈련’ 참관·관계자 격려

경상북도의회는 ‘2023년도 을지훈련’ 실시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경상북도 충무시설을 방문해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무원의 전시임무 절차를 점검하는 등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 주관 연습 훈련이다.

을지연습을 참관한 배한철 의장은 “호국의 고장인 경북도의 자부심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전시 대비 계획과 업무를 숙지하여 실질적인 비상대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은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직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핵심역량을 빠른 시기에 습득하여 안정적인 입법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 의회에서 실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 마련한 교육이다.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폭염 속에서도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집행부에 재난대응 체계와 매뉴얼 전면 점검, 주민 대피 골든타임 확보, 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만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도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결특위 구성

경북도의회는 8월 29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추천 3명, 각 상임위별 2명을 추천해 총 15명의 도의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황재철 도의원(영덕, 재선), 부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도의원(포항, 초선)이 각각 선출됐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등 앞으로 1년 동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배한철 의장, MZ세대 직원과 소통 간담회 가져

지난 9월 6일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배 의장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본회의장 온라인 방청 신청, 의원 연수회 등 사무처 9월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장을 중심으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일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MZ세대 직원들과 보다 폭넓은 공감과 소통을 위해 오찬 간담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배 의장은 젊은 세대 직원들과의 자유토론을 통해 세대 간 시각 차이를 좁히고, 새로운 가치관과 의견을 기탄없이 나누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동해안 수산물, 안심해(海)요!

지난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 종료 후 의원식당에서 도의회·도청·교육청이 함께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시식회 행사가 열렸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시식행사를 통해 국민 안전 먹거리 인식제고와 소비활성화 등 홍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시식행사에는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안전하고 싱싱한 우리 수산물 소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2023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 경주에서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제34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를 마치고,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배한철 의장은 “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삶을 살뜰히 챙길 때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료의원들에게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매번 현장으로 달려가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위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가 9월 14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시·도 공항특위 위원들은 대구시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사업 및 후적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일상의 평화, 그 소중함을 발견하다 칠곡군에서 발견한 평화

제10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제14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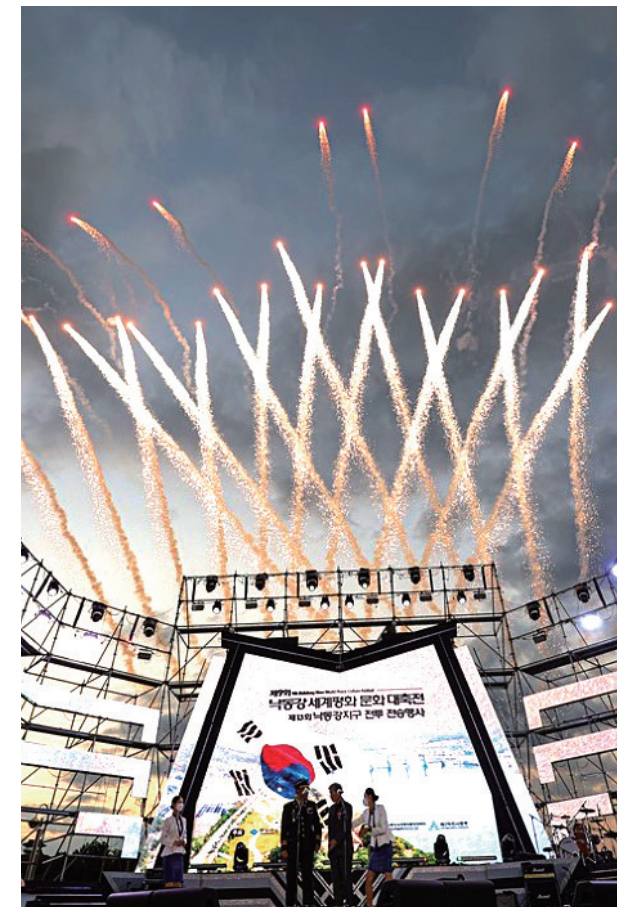
평화란 무엇일까? 따뜻한 집에서 가족 모두 모여 함께하는 끼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는 산책, 커피 한 잔과 함께 친구와 나누는 수다…….

이 당연함과 평범함, '평화'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축제가 매년 경북에서 펼쳐진다. 호국의 고장으로 알려진 칠곡군에서 열리는 성대한 규모의 가을 축제를 소개한다.

낙동강 전투를 기린다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과 세계평화를 지켜낸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Walker Line) 전투 지구에서 개최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고, 참전용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내 유일 호국 평화 축제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축제와 함께 14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도 함께 치러진다.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 춘천지구 전투 전승 행사와 함께 국방부 3대 전승 행사 중 하나인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평소 볼 수 없는 군(軍) 관련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대표 호국축제 되길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해 발전을 거듭해 온 축제는 그동안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해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위커 장군의 손자 샘 위커와 다부동 전쟁 영웅故백선엽 장군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비롯한 세계의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호국 평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17년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와 통합 개최해 낙동강을 가르는 430m부교, 의장대 공연, 축하 비행과 고공강하 시범 등 군(軍) 콘텐츠를 축제 기간 동안 전시, 체험 콘텐츠와 함께 제공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이었던 2019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만 명의 관람객이 대축전을 방문했을 정도다.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에서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보자.

기간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15일(일)
장소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 및 왜관읍 시가지
내용	전시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주최	경상북도, 칠곡군, 국방부
주관	칠곡문화관광재단, 제2작전사령부
홈페이지	http://nakdongriver-peacefestival.or.kr

모처럼 칠곡군에 왔다면,
여기 어때요?
가족 · 친구 · 연인
함께하기 좋은

가산수피아

아름답게 펼쳐진 핑크물리 언덕과 향기로운 허브정원, 싱그러운 숲과 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이 어우러진 테마파크형 수목원이다. 다양한 수목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장과 실제 크기의 공룡 모형을 만날 수 있는 세계 최대 공룡랜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여유로운 공간에서 향기로운 커피 향을 느끼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카페 그라운드수피아까지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의 낭만을 충족시켜 준다.

위치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



숨은 그림 찾고~ 색칠도 하고~

경북을 함께 알아가요

경북 칠곡군 가산수피아



숨은그림찾기 응모 방법

가을낭만을 찾아, 가산수피아
전국 최대 규모의 민간정원으로 자연숲, 허브정원, 미술관 등이 어우러진 숲 테마파크다.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봄도 유명하지만 가을이면 펼쳐지는 대단지의 핑크물리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는다. 또, 카라반과 캠핑장 운영도 겸하고 있어 깊어가는 가을, 여행자들의 낭만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명소다.

응모방법

그림을 예쁘게 색칠하고 그림 속 숨은 그림을 찾아 QR코드를 통해 참여해 주세요. 11월 10일(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 중 당첨자를 추첨해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이름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문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 ☎054-880-5144

여름호 당첨자

김○우(4066), 김○지(9360), 김○원(4066), 최○경(3638), 정○수(3067)

* 축하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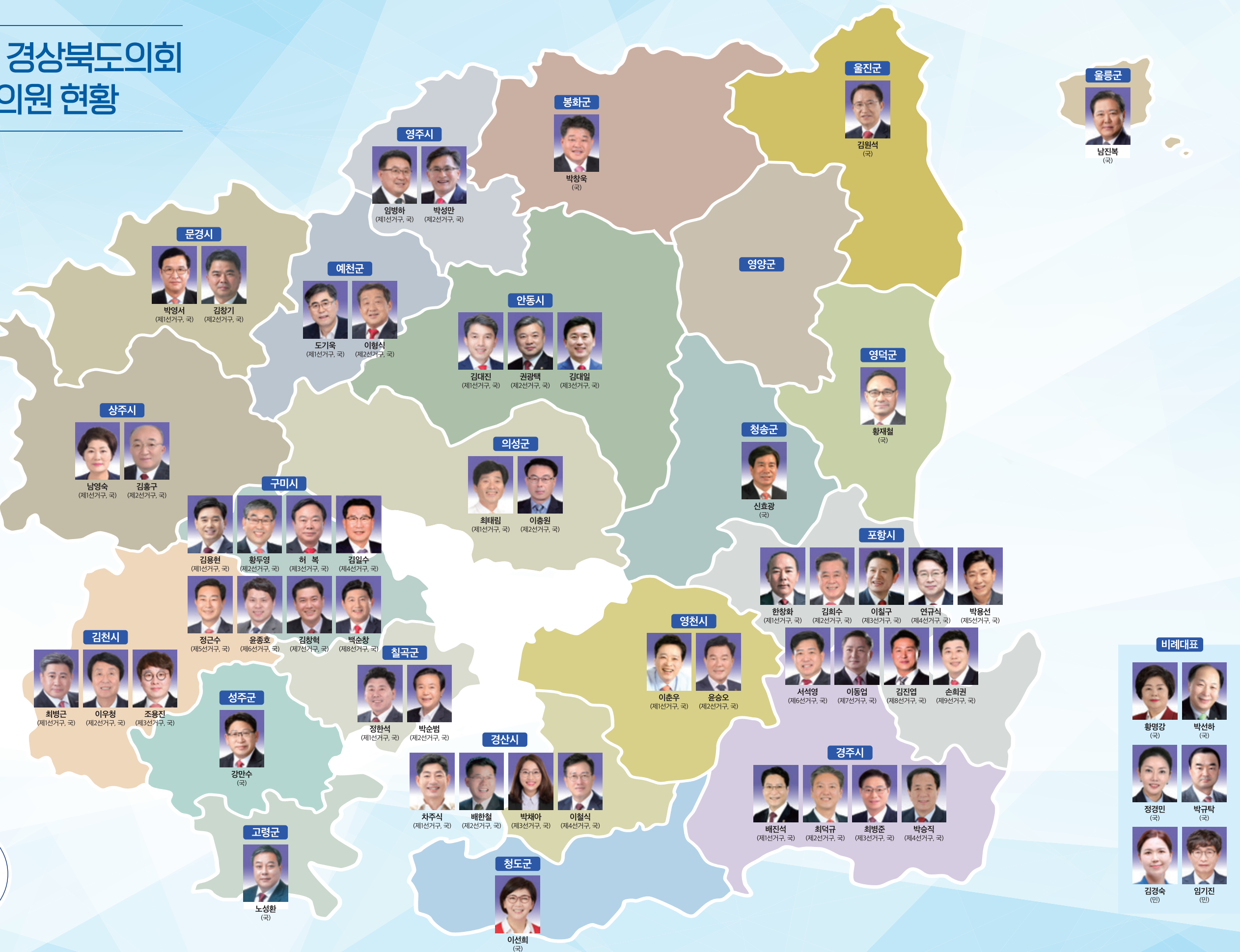


참여 QR코드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QR코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역별 의원 현황



| 정당표시
 • 국민의힘: 국
 • 더불어민주당: 민